

#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 물가안정 현장 소통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전주점 방문... 애로사항 청취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참여 하기도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4일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해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및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 기상이화로 농산물 가격이 7월 소비자 물가 기준 전월비 1.0% 전년 동월비 5.2% 올라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비 33.1%, 배는 15.1%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협 관계자들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채소·과일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배추·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채소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외의 대화에서는 "기상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농산물의 특성상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라는 점을 언급, 도내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쌀 매장에서는 농협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 쌀 소비촉진 캠페인(아침밥 먹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따른 범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한 건강한 쌀 소비문화 정착이란 의미를 담은 뜻깊은 행사로, 마트 고객 대상으로 군산회현농협 옥토진미(500g) 홍보용 쌀 1천 개를 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 부지사는 마트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일일이 홍보용 쌀을 건네주며 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4일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해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및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한 식습관을 통한 쌀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도내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에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종합식품회사 하림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집을 찾아 입소 장애인들에게 삼계탕 배식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 무더운 여름,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 하림, 말복 맞아 사회복지시설서 삼계탕 나눔 봉사

종합식품회사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와 함께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방주의집'을 찾아 입소 장애인들에게 삼계탕 배식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림사랑나눔봉사단'과 함께 관계기관 봉사자들은 방주의집을 찾아 입소 장애인들 200여명에게 직접 준비한 삼계탕과 수박 등을 대접하며 무더위로 지친 몸

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직원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장애인 분들에게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기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운봉농협, 김장용 배추 모종 조합원들에 무상 공급

남원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은 7월 25일 임직원들이 파종해 20여일간 정성껏 가꾼 배추 모종을 전체 조합원 1,700명에게 1인당 1칸(128구)씩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운봉농협은 조합원의 영농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실익사업으로 2022년부터 조합원 배추 모종 무상으로 공급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전북농협 조합장 '사랑의 쌀 모금액' 전달

### 전북 쌀 소비촉진과 범 도민 건강한 식습관 조성을 위한 모금액 기탁

지난 14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에서 특별한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전북 각 시군 농협의 시군조합 운영협의회와 품목협의회 등 전북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부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은 전북농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4,000만원을 지역본부에 전달하면서, 최근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드리고 전북 쌀 소비촉진과 쌀값 지지를 위해 다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탁된 금액은 전북의 대학생 한 끼 더 프로그램 지원과 외국인 공공형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의 건강한 식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농협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쌀값 회복과 지지를 위해 지자체 등 다

양한 기관과 업무협약, 릴레이 챌린지, 아침밥먹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과 홍보활동에는 밥버거 식혜, 증정용 쌀 등 우리 쌀 18톤 이상(하루 150g 1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활용됐다.

김영일 본부장은 "오늘 모아주신 조합장님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고 소중한 모금은 농업과 농업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전북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 전은장학문화재단, 도내 청년들 '커리어 부트 2024 JB 청년캠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2~13일 전북은행 본점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부트 2024 JB 청년캠프'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과 리더십 개발 등을 통해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년 캠프에서는 취업 트



랜드 및 기업인재의 조건, 청년의 금융관리, 인공지능 AI와 SNS 활용법, 취업 준비를 위한 나의 브랜딩, 취업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토크콘서트 등 청년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참여형 워크숍으로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강의 후에도 참여 강사들의 컨설팅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청년은 "올해부터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해당 캠프 외에도 다양한 캠프에 참여했지만 가장 보람차고 도움이 되는 캠프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는 도내 청년들과 청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공과 함께 새만금에 문화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했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전 기간 동안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관광 관련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특히, 엠지(MZ)세대에게 친숙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새만금 홍보

송 제작, 새만금 앞 바다를 바라보는 흔들 그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이 중 창의성과 독창성, 실행 가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평가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30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되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경품은 8월 중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sae-manj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